

<한국 사회의 전염병 관련 표현에 대한 언어문화 연구>에 대한 토론문

윤재연 (호서대)

최근 2년간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순식간에 일상이 무너졌고, 팬데믹에 빠진 온 인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지속해 왔습니다. 다행히 차츰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진 시기인 만큼, 한국어 전염병 관련 표현을 바탕으로, 전염병에 관한 언종의 인식이 무엇인지 밝혀내고자 하는 논문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아닌가 합니다. 또한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신 것만으로도 연구에 들인 노력과 정성이 충분히 느껴지는 논문입니다. 본 논문에 대한 토론은 토론자가 논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거나 제안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본 논문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총 13개 전염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구자께서는 이들 13개 전염병이 ‘한국의 사회의 주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다면, 한국 사회의 ‘주요’ 전염병의 정확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연구의 내용과 범위’에, ‘전염병 관련 앞선 전염병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주요 전염병의 유형을 조사하고 분류한다.’라고 기술되어 있긴 합니다만, 해당 내용만으로는 한국 사회의 주요 전염병을 선정하신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2. ‘<표1> 연구 대상의 주요 전염병’에서, 연구 대상 전염병을 감염 경로 및 원인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병’과 ‘에이즈’를 ‘사람이나 물건을 만져서 옮는 전염병’으로 분류했는데, 연구 내용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이는 병에 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닌가 하여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나병’과 ‘에이즈’는 ‘만져서 옮는’ 전염병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각주 1’에 ‘감염 경로 및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거나 불분명할 수는 있으나 주로 전파되는 감염 경로 및 원인으로 구분한다.’라고 기술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대한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에 따르면 ‘에이즈’는 성행위나 혈액으로만 감염되는 질병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접촉(악수, 포옹, 키스) 등으로는 절대 감염되어 옮는 질병이 아닙니다. ‘나병’ 또한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진 바 없으나, 주로 환자의 비강을 통해 배출된 나균이 호흡기나 상처가 있는 피부를 통해 침투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에이즈에 대한 편견이 팽배하고,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요구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용어 사용에 있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어떨까 조심스레 제안하는 바입니다.
3. ‘Ⅲ. 전염병 관련 어휘’에서는 연구 대상 전염병명의 유사어 및 관련어에 대해 조사한 바를 바탕으로, “전염병 관련 어휘에는 전염병명의 유사어가 많고, 예전에는 주로 한자로, 근래에는 영어로 표현한 것, 전염병명에 주된 증상을 나타내면서 병에 대한 공포, 병을 귀한 존재로 여기기도 한 것 등을 알 수 있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전염병명의 유사어가 많다는 것은 ‘결핵, 홍역, 사스, 메르스’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주로 한자로, 근래에는 영어로 표기한 유사어 및 관련어가 많다고 하였는데, 예전과 근래를 구분하는 기준이 좀 더 명확하면 좋을 듯합니다. 또한 전염병명의 유사어에 병에 대한 공포가 반영되어 있거나, 병을 신(神)으로 높이는 표현이 많은 것은, 과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었던 과거에서부터 존재해 왔던 전염병의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21세기에 발발한 전염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연구자께서 찾아내신 전염병명의 유사어 및 관련어의 이러한 양상은, 그 병이 유행했던 시기적 특성과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4. ‘IV. 전염병 관련 표현’에서는 13개 전염병과 그 유사어를 검색해서 나온 724개 예문을 크게 네 가지-‘전염병 지칭’, ‘전염병의 공포’, ‘전염병에 걸린 환자’, ‘전염병 감염지’에 관련한 말-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구자께서 724개의 예문을 이들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유형을 ‘전염병 지칭’이라고 하였으나, ‘지칭’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대상을 가리켜 이르는 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전염병의 공포’, ‘전염병에 걸린 환자’, ‘전염병 감염지’의 경우에도 전염병의 지칭 기능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나. 전염병 공포’에서 ‘5. 피고인은 복수심에서 다른 여성들에게 에이즈를 감염시켰으므로 중죄로 다스려야 합니다.’가 어째서 ‘공포’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이즈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을 바탕으로 ‘공포’로 판단하였다면 수긍되는 면이 있긴 하지만, 다른 예문의 경우는 예문 내에 명확히 ‘공포’라 할 만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예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9. 14세기 유럽에는 페스트의 유행으로 농촌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 노동력의 부족을 가져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떤 점에서 ‘전염병의 공포’로 분류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또 ‘나. 전염병 공포’의 ‘1. 천연두가 검어 꺼지고 답답하여 헤매고 정신이 아득하면 죽는다’의 경우, 연구자께서는 ‘죽는다’는 표현에 주목하여 ‘공포’로 분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예문은 ‘전염병의 걸린 환자의 증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전염병 환자’는, 전염병 환자에 대한 표현을 전염병에 걸린 후 환자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와 전염병 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인식을 드러내는 표현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13. 25번 확진자가 ~ 재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재격리에 들어갔다.’가 어째서 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대한 부분이므로 오히려 ‘가. 전염병 지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토론자의 짧은 지식으로 연구자께 누를 끼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